

군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록

위원회 차수	2024년 제3차	비 고
일 시	2024. 12. 6.(금) 14:00	
장 소	군산시청 5층 재난상황실	
출석위원	9명	
회의진행 순서	개회-위원장 인사-안건처리-폐회	
상정안건	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안) 심의·의결	

위원 발언요지

[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안) 심의·의결]

○ 김성천 부위원장

-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
- 기술적인 부분은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아직은 시급한 것 같음
- 이번 기본계획은 첫 번째 계획이고 5년 뒤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, 오늘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을 원안가결하고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음

○ 백운초 위원

- 이번에 추진되는 계획이 첫 번째 계획인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될 부분이 있는 것이 있으면 향후 검토 후 반영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음

○ 박서현 위원

- 폐기물 재활용이나 저감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며 음식물 RFID 관련 부분도 언급해 왔었는데 관련 내용이 없음
- 폐기물 불법소각 관련 대책이나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듦
- 개인의 책임 관련 부분들이 덜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며,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시민참여 관련 부분이 약해 보임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RFID는 군산시의 경우 대부분 보급이 되어있어서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음
 - 불법 소각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은 지자체 관리 권한에 포함되지 않음
 - 시민 참여 부분은 탄소포인트제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,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선 시민의식 전환을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-

○ 강영신 위원

- 책임성, 선도성, 주도성 부분에 있어 주민센터, 예술의 전당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
- 폐기물 분야에서 시설 혁신 등을 통한 CO₂ 포집 관련 사항도 혁신 방법의 하나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
- 탄소중립과 이행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면 예산이 덜 소요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음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공공의 경우 현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어 추가적인 별도 사업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음
- 탄소 포집의 경우 군산시에서 상용화되기는 아직 어려워 보이므로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움

○ 이대승 위원

- 태양광·풍력 발전과 관련하여 호남지역 송전선로 개통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음
-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것들은 항상 리스크가 있음, 환경교육도시 추진 관련 향후 선정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안 등이 있어야 함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송전선로 개통 문제에 따른 우려를 고려하여 사업완료 시기를 적용한 측면이 있음
 - 환경교육도시가 되려면 관련조례 제정, 교육센터 설립, 교육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하므로, 최종 지정여부를 떠나 그 준비 과정에서 군산시의 환경교육 관련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
-

○ 민경국 위원

-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구조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에 대한 과제나 계획들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음
-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, 자원순환 시스템 등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친환경적 전환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탄소중립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음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산업부분은 관리권한 외 부분으로 보고내용에는 실행가능한 부분만을 추출해 반영한 상황이며, 산업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었음

심의결과

[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안) 심의·의결]

○ 군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안)

- 심의·의결 결과 : 원안가결
-